

# 호텔은 ‘활짝’, 여관은 ‘한숨’… 숙박업 내 양극화 심화

외국인 특수에 호텔업 매출 반등  
내수 의존 여관업은 역성장 지속  
4월 서비스지수 -6.3% ‘최대 낙폭’  
“투숙객 없어 문 닫을 판” 한숨

외국인 수요 증가로 호텔업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반면, 여관업은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면서 숙박업 내 명과 암이 뚜렷해 지고 있다. 내수침체로 숙박업계 내 큰 타격을 받은 여관업종이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숙박업 서비스 생산지수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6.3%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을 포함, 통계청이 집계한 서비스업 생산업종 중 가장 큰 감소율이다.

여관업이 숙박업 감소를 견인했다. 숙박업은 호텔업과 여관업으로 집계되는데, 호텔업이 지난 2월(1.7%), 3월(0.1%), 4월(-0.9%) 증감세를 보인 데 반해, 여관업은 2월(-5.6%), 3월(-7.0%), 4월(-8.8%) 대폭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비교해 봐도, 올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여관업이 줄비한 거리 이미지.

해 1분기 호텔업은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나, 여관업은 5.9% 감소했다. 이에 전체 1분기 숙박업은 서비스 생산은 전년 대비 3.2% 줄어 들었다.

내수 위축이 여관업을 강타했다는 분석이다. 호텔의 경우, 내수침체에도 외국인 투숙객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보전할 수 있으나, 온전히 내국인 투숙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관업은 침

체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다.

호텔업계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실적 부진을 이어가다, 올해 1분기 외국인 방한객 증가로 전반적인 실적 반등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매출액 305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적자는 22억으로, 지난해 적자 147억원에 비해 그 규모를 약 6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롯데관광개발 역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매출 121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8.2% 증가한 130억원을 달성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방한객 수는 170만 7113명으로 코로나19 시즌인 지난 2019년 4월보다 10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관업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침체로 외국인의 비해 내국인 관광 소비 추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관광소비는 2조 7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나, 내국인 관광소비는 12조 2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다.

여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모 씨(62세)는 “요즘에는 비즈니스 호텔,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생겨나면서 여관을 찾는 투숙객들이 많이 줄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경기까지 좋지 않으니 상황이 더 막막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업종 자체가 사라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삼양그룹

### “바이오, 새 성장축으로”

삼양바이오팜 출범 예고

국내 대기업들이 바이오 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할하거나 전문화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삼양그룹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는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 회사로 분할하는 것으로,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삼양바이오팜 공식 출범 예정일은 오는 11월 1일이며 같은 달 24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는 지주회사 역할만 담당하며 임대용 대표이사가 이끈다.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게 되는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이사가 운영한다.

삼양그룹은 이처럼 전문경영인의 독립 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그룹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김경진 대표를 영입해 그룹 핵심 사업으로 바이오 부문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더본코리아, 점주 중심 ‘상생위원회’ 본격 가동

300억 지원 이어 협의체 출범 준비  
외부 전문가·법률자문단 설계 참여  
소통채널 통해 현장 의견 제도화 추진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위원회’ 출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책을 발표한 뒤 백종원 대표와 브랜드별 가맹점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점주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 권장해 왔다. 상생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점주협의체 멤버들과 본사 담당직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발족 첫 준비회의에 참석한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본코리아는 상생위원회 출범

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해온 법무법인 덕수에 설계 및 운영 등 컨설팅 과업을 공식 의뢰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5년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해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온 바, 상생위원회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29일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발족을 위한 첫 준비회의부터 백종원 대표와 가맹점주 및 본사 직원 외에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도 변호사가 참여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더본코리아가 이번 상생위원회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본코리아의 상생위원회의 모델은 본사가 점주분들 주도의 협의체를 적극 권장하고 실제 문제해결을 하므로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상생위원회를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모든 구성원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종근당건강, 씨케이디 ‘청매실’ 클렌징 선포

클렌저·오일·밤 등 3종 구성

종근당건강의 피부건강기능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린티드’가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에서 클렌징 제품군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씨케이디 청매실 팩습 클렌저,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밤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모두 국산 원료에서 영감을 얻어 광양산 청매실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매실 팩습 클렌저는 쫄쫄한 제형으로 설계됐다. 세안, 팩, 스킨케어 등 3단계 기능을 한 데 갖춰 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각질을 관리해 준다. 쫄

주머니를 향상화한 튜브 제품으로 출시돼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청매실 클렌징 오일은 세안 시 물과 만나면 빠르게 유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진한 메이크업을 즉각 녹이는 동시에 오일 성분의 잔여감도 최소화했다. 청매실 클렌징 오일 밤은 갈아 쓰는 제품으로 매번 청결함을 선사한다.

종근당건강 조영한 화장품사업부장은 “광양산 청매실은 초여름 푸른 명품으로 불리는 신토볼이 원료”라며 “국산 원료 우수성에 집중해 모공, 피지(유분), 요철(피부결), 블랙헤드 등 말끔한 클렌징과 매끄러운 피부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 국내 품목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군 확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30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성분명: 데노수맙)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엑스브릭은 글로벌 제약사 아젠이 개발한 골질환 치료제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다. 엑스지바는 암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예방, 골거대세포종 등 종양질환 치료 등에 쓰인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엑스브릭의 적응증도 오리지널 의약품인 엑스지바와 동일하다.

이번 품목허가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데노수맙 성분 바이오시밀러 2종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에

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경 후 골다공증 등을 치료하는 오보텐스(성분명: 데노수맙)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규제업무(RA)팀장 정병인 상무는 “오보텐스와 엑스브릭 모두 품목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골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양한 질환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확대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팜젠사이언스

### 위염 치료제 경쟁 격화

레바미피드 서방정 선점전

팜젠사이언스가 서방형 레바미피드 위염치료제(제네릭) 시장 선점에 나섰다.

팜젠사이언스는 최근 ‘미피드서방정 150밀리그램(레바미피드)’은 품목허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미피드서방정 주성분인 레바미피드는 위점막 병변 개선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서방형 제제는 유한양행 등이 공동 개발해 2020년 12월 허가를 받았다. 하루 3회 복용(100mg)에서 하루 2회 복용(150mg)으로, 복용 순응도를 높인 약품이다.

팜젠사이언스의 미피드서방정은 오리지널 제품 재심사 종료 직후 품목허가를 신청해 제네릭 허가과 우판권을 확보했다. ‘퍼스트 제네릭’ 전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오는 7월 제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팜젠사이언스는 특히 자사 주관으로 3개 제약사와 공동 개발하면서 수탁제조에 의한 추가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60억원에 달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